

50

사랑의 제자 요한

요일 4:7~21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은혜찬송 213장 (여기에 모인 우리)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함을 압니다.
2.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함을 압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일 4:7~9)



을 이해하기

사도 요한은 어부로서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낚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학식도 없었고 성격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희를 멸하자고 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가 주님께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자신과 야고보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어머니를 통해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였고, 식사 때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식사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아끼셨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판관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부활과 승천 모두를 지켜본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부터 모친 마리아를 부탁받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평생 봉양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는데 말년에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도 설교를 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의 참 사랑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6)

And we have known and believed the love that God has for us, God is love, and he who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and God in him. (1Jn 4:16)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사도 요한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봅시다(마 17:1, 막 3:17, 눅 9:54, 요 21:24, 요일 1:1, 계 1:1).
- ② 요한이 사랑의 제자로 불리는 이유를 써 봅시다(요 21:20~22, 요일 4:7~11).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요 13:3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이

요 13:3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요 15: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요 15:17

↓

롬 13:8

↓

롬 13:9

↓

롬 13: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월터 윌슨씨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징병제도가 있을 때 군에 들어가 뉴욕주 샌디 후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군인들은 뉴욕의 한 실업인이 보낸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포켓용 거울인데 뒷면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뒤를 보시오.”

흔한 거울이었지만 이 글을 읽고 작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던 월터 윌슨은 죄와 욕심뿐인 자기의 삶에 대해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 후 그는 의학을 공부하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돕는 의사가 되었으며 자신의 간증을 『A Doctor's Best Love Story』라는 제목의 책으로 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인간의 생애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질문 있어요~



순대나 해장국에 들어있는 선지를 먹어도 되나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것이니라 (창 9:3~4)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시되 피채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흠으로 덮을지니라 (레 17:11~13)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거나 피가 깨끗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피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며, 병의 원인을 찾을 때 피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하기도 합니다. 피(=생명)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구약의 교훈일 뿐 신약시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행 15:28~29)

생피를 먹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비록 익은 것이라 해도 피로 만든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